

“역대급 빌런 추적...액션도 역대급”

1편보다 확장된 세계관 재미 풍성
제작도 견해...시리즈8편까지 기획
“마석도 캐릭터는 내 인생 DNA”

배우 마동석(51)이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이터널스'를 통해 수천 년을 살아 온 히어로로 변신했다면 이번엔 '현실판 히어로'로 돌아온다. 무대는 18일 개봉하는 '범죄도시2'로, 2017년 개봉해 688만 명을 모은 '범죄도시'의 속편이다. '공포의 빵 때리기'를 내세워 악독한 범죄자를 소탕하는 '괴물형사'가 5년 만에 귀환하는 셈이다. 2편에서 마동석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악당을 잡기 위해 동료 형사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한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언론사사회에 참석한 그는 무대를 해오며 넓힌 만큼 “1편을 뛰어넘는 더 큰 재미”를 자신했다. “1편보다 확장된 세계관에서 더 극악무도한 빌런이 나타난다. 그를 추적하는 ‘형사 마석도’의 액션과 지략 등의 큰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내 모든 것을 담아낸 캐릭터”

조선족 연쇄살인마 ‘장첸’이라는 놀라운 악역을 탄생시킨 윤계상의 공백은 걱정하지 않았다. ‘베터라 액션스타’인



기획·제작·주연 등 1인3역을 거머쥔 소확행 배우 마동석이 영화 '범죄도시2'로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한 성공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자신과 대등한 액션을 펼치며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빌런 손석구가 있기 때문이다. 윤계상이 “호랑이”와 같다면 손석구는 “사자”에 가까웠다.

“두 맹수 모두 잔인하고 악랄하죠. 두 맹수 중 누가 더 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두 맹수가 가진 특징이 다르니까요. 1편만큼 악독하지만 전혀 결이 다른 빌런을 훌륭하게 만들어 줬어요.”

수많은 영화에서 다른 매력의 캐릭터를 연기했지만 ‘괴물형사 마석도’는 “배우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니는 “아이덴티티이자 DNA”와 같은 캐릭터다.

“경찰이 되고 싶었던 어린 때의 꿈,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형사 역을 직접 만들어서라도 하게 된 배우로서의 욕심, 범죄가 없는 세계를 바라는 바람 등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제 인생의 절반은 영화를, 절반은 복싱을 했는데, 그런 저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저 그 자체의 인물이 바로 ‘범죄도시’ 마석도입니다.”

● “이미 8편까지 기획”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한 그는 2004년과 2007년 조선족 조직폭력배를 소탕했던 특정 사건을 모티브로 했던 1편과 달리 2편은 여러 가지 사건을 조합해 가상의 사건으로 구성했다.

“2007년~2010년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을 살펴보고 영화에 어울릴만한 사건들을 골랐어요. 영화 속 배경은 2008년으로 설정했어요. 앞으로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영화의 속 연도는 달라질 겁니다. 1편의 배경은 2014년이었는데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점점 현재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 같아요.”

1편의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8편”을 구상했고 “3편 제작에 착수”했다.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유머와 재미”를 갖춘 영화를 계속 내보일 예정이다.

“마석도”라는 강력한 형사를 중심으로 영화마다 다른 사건과 빌런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런 프랜차이즈가 가능하게 돼 개인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미국 오디션 1위’ 알렉사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

빌보드 뮤직 어워드·‘캘리 클락슨쇼’ 출격
LA 등서 팬사인회...이달 말 귀국 국내활동



알렉사

“케이팝의 또 다른 기적!” 재미교포 출신 케이팝 가수 알렉사(Alexa)가 미국 지상파 방송사 NBC 경연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현지에서 케이팝의 또 다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알렉사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현지에서 방송한 NBC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American Song Contest)에서 경쟁 상대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케이팝 가수가 미국에서 열린 대규모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처음이다. 알렉사는 2018년 엠트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 출연하며 얼굴

을 알렸고, 이듬해 ‘밤(Bomb)’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알렉사는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승자 자격으로 16일 오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오른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무대에서 케이팝 가수가 공연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에 이어 알렉사가 두 번째다.

이어 NBC 인기 프로그램 ‘캘리 클락슨 쇼’에 출연한 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 3개 지역에서 열리는 팬사인회를 진행한다. 현지에서 활발하게 일정을 소화한 후 이달 말 귀국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연예뉴스 HOT 3

배우 이일웅, 담도암 투병 중 별세



이일웅

1970~1980년대 반공드라마에서 북한군 역을 맡아온 이일웅이 별세했다. 향년 80세. 11일 유족에 따르면 이일웅은 1월 담도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전날 밤 9시 22분경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6시다. 1942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이일웅은 1961년부터 연극 무대에 올랐고, 1964년 KBS 4기 탤런트로 데뷔했다. 1970년 일일극 ‘미스터 리 흥분하다’, 1971년 고 김자옥을 스타덤에 올린 ‘심청전’ 등에 출연했다. MBC ‘제3공화국’, SBS ‘아인시대’ 등 시대물에서 활약했다.

1999년 스타 한자리에...7월 ‘슈퍼콘서트’

1999년 활동한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2022년 타임캡슐 슈퍼콘서트’가 열린다. 11일 쇼팩토리에 따르면 ‘2022년 타임캡슐 슈퍼콘서트’는 7월 16일 오후 7시 경기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1부에는 가수 김원준, 쿨 이재훈, 톨라, 코요태, R.ef, 소찬휘, 태사자, 디바, 김현정 등이 무대에 오른다. 2부에는 복고 스타일의 디제잉과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태사자는 미국에 체류중인 이동윤을 제외한 3인이 무대에 오른다. 그룹 디바로는 지니, 민경, 채리나가 다시 호흡을 맞춘다.

“유명 래퍼, 몰카 찍어 지인과 공유” 폭로

래퍼 던밀스(황동현)의 아내 A씨가 래퍼 B씨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B씨를 지목하며 쓴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A씨는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여자를 만난다고 말한 B씨의 말을 지적하며 “그 뒤에 몰카(불법촬영물)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했다.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 했을 텐데”라고 썼다. 이어 그가 지인 C씨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온라인에는 B씨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다비치 이해리 7월 결혼 비연예인과 ‘작은 결혼식’

가족 친지 등만 초대 소규모 웨딩
“저를 아껴주고 배울 점 많은 사람”



이해리

여성 듀오 다비치 멤버 이해리(37)가 7월 비연예인과 결혼한다. 소속사 웨이크원은 11일 “이해리가 연인과 7월 결혼식을 올린다”며 “가족과 친지, 지인만 초대해 소규모 형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연예인인 예비신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소중한 인연을 만나 새로운 인생 2막을 열게 된 이해리에게 따뜻한 축복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해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필 편지로 결혼 소식을 밝혔다. 그는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지고,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며 “무엇보다 저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아껴준다. 평생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다비치 이해리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노래하며, (2)민경이랑 웃고 떠들고 있겠다”고도 했다.

평소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오며 ‘영혼의 단짝’으로 불린 강민경은 “껴져줄게 잘살아”라는 댓글을 남겨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해리는 16일 오후 다비치의 새 앨범 ‘시즌 노트’(Season Note)를 발표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한다. 다비치는 이번 앨범을 통해 새로운 장르와 테마를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겠다는 각오다.

한편 2008년 데뷔한 다비치는 국내 최장수 여성 듀오로 ‘미워도 사랑하니까’, ‘8282’,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아 멈춰라’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우리들의 아름다운 별’ 강수연, 영원히 잠들다 배우 강수연이 수많은 동료들의 애도 속 영면에 들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강수연의 영결식이 유지태의 사회로 진행됐다. 영결식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1만1000여명의 팬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연상호 감독과 정우성·설경구·류경수 배우가 고인을 운구했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결식장에는 ‘별보다 아름다운 별, 안녕히’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사진제공 | 사진공동취재단

주상욱 “제가 ‘리틀 최수종’ 이라고요? 영광이죠”

K1 ‘태종 이방원’서 태종역 열연
애처가·카리스마 등 최수종 닮아
내달 또 드라마...“일 복 터졌어요”



주상욱

“제2의 최수종? 영광이죠.” 배우 주상욱(44)이 데뷔 24년 만에 별명을 얻었다. 바로 ‘리틀 최수종’. 지난해 12월부터 1일까지 5개월 동안 KBS 1TV ‘태종 이방원’을 성공적으로 마친 덕분이다. 극중 조선 3대왕 태종을 연기하는 그의 모습이 앞서 수많은 사극에서 왕 캐릭터로 카리스마를 뽐내낸 선배 최수종을 떠올리게 한다는 호평이 수직이거 됐다.

11일 서울 강남구 HB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주상욱은 “정통사극의 부활에 힘을 보탤 것 같아 기쁘다”고 웃었다.

“촬영지인 경북 문경새재 입구에 사극 포토스터들이 쭉 붙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수염을 붙이고 용포를 입은 모습이 선배와 비슷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6년 만에 만들어진 정통사극이어서 부담이 컸는데, 시

청률이 11.5%(닐슨코리아)까지 오르고 화제도 많이 돼 다행이에요. 앞으로 사극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하니 정말 뿌듯해요.” 애처가 면모도 ‘국민 남편’ 최수종과의 공통점이 있다. 2017년 결혼한 아내 차예련, 올해 다섯 살이 된 딸과 보내는 알콩달콩 일상을 SNS 등으로 보여주고 있다. 차예련은 남편의 바통을 이어 23일부터 KBS 2TV 일일드라마 ‘황금가면’의 주연으로 나선다. 그는 “마누라”라고 부르며 차예련을 자랑하기 바쁘다.

“황금가면”의 대본을 읽어봤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마누라가 홀로 이끄는 서사도 많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KBS와 남다른 인연이 있나 봐요. 마누라를 따라 얼마

전 잠시 출연한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팬스토링’도 KBS 작품이에요. 어떤 방송사 관계자가 ‘KBS에 헌신하는 부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하하!”

부부가 한 방송사에서 나란히 주연드라마를 내놓다 보니 “주변에서 벌써 연기대상 이야기를 묻는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둘이서 손잡고 입장하는 그림이 상상되네요. 저는 올 초에 방영해 수상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대신 연말까지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마누라에게는 큰 기대를 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하! 우리 마누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과도 같아요. 언제 또 이렇게 원 없이 연기해보겠어요. 이리다가 다음엔 조선 18대왕 현종으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죠. 하하하!”

유지태 기자 yjh0304@donga.com